



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

| 투자전략/시황 Analyst 한지영, RA 유지윤



키움증권

미 증시, 물가 지표 안도 속 AI 산업 불안 및 수급 부담 완화 등으로 강세

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30일(목) 미국 증시는 6월 PCE 물가 컨센 부합(YoY, 3.7% vs 컨센 3.7%), MS(+15.5%), 메타(-8.0%) 실적을 통한 AI 산업 불안 완화, 대형 헤지펀드의 테크주 청산에 따른 디레버리징 해소 기대감 등으로 마이크론(+18.4%), 샌디스크(+26.0%) 등 반도체주의 동반 폭등에 힘입어 강세(다우 +1.2%, S&P500 +1.7%, 나스닥 +2.8%).

7월 내내 증시에 하방 압력을 가했던 요인은 AI업체들의 수익성 및 투자 사이클 종료 우려, 수급 불안이었음. 그러나 전일 미국 증시에서의 AI, 반도체주들이 동반 폭등했다는 사실에서 유추할 수 듯이, 7월 중 연속적인 가격 조정 압력, 2분기 하이퍼스케일러 업체 실적 등을 통해 상기 하방 압력 위험을 상당부분 덜어낸 것으로 판단.

MS는 애저 클라우드 성장률 호조(YoY, + 43%), 양호한 현금흐름 등을 통해 수익성을 증명. 메타 역시 주가는 현금흐름감소 여파로 급락했지만, 이들 또한 본업인 광고 사업(YoY, +27%)에서도 견조한 실적을 시현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.

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아마존의 경우, 매출액과 영업이익 서프라이즈에도 현금흐름(FCF -76억달러 vs 컨센 -38억 달러)이 약화가 되기는 했음. 그러나 본업인 AWS 매출 성장률(YoY, +37% vs 컨센 31%) 호조, 2026년 CAPEX 상향(기존 2,000억 달러 → 2,200억 달러), 2028년까지의 AI 수요 호조 전망을 제시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. 이로 인해 현재 시간외에서 9%대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, 시장에서도 실적 개선을 동반한 현금흐름 약화에 대해 이전보다 덜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.

또 오픈 AI 출신인 레오폴드의 Situational Awareness Capital 펀드의 청산 소식도 눈여겨볼 필요. 이들 펀드는 그동안 약 4배 레버리지를 통해 주도주인 AI, 반도체주에 대규모로 베팅했지만, 최근 연이은 주가 조정으로 마진 콜 압력을 받았으며, 헤지펀드 시타델이 이들의 포트를 대부분 인수한 것으로 알려짐. 최근 반도체주 급락에는 레버리지 펀드들의 손실로 인한 강제 매도 물량 압박이 존재했지만, 레오폴드 펀드의 청산은 디레버리징 작업이 후반부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음. 따라서, 현시점에서는 디레버리징 확산으로 인한 주도주들의 주가 및 수급 왜곡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을 낮게 가져갈 필요.

전일 국내 증시는 매파적 동결을 했던 7월 FOMC, 알파벳과 메타의 엇갈린 실적에도, 최근 폭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 속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컨퍼런스 콜에 힘입어 장중 5%대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으나, 이후 개인의 손실 확정 매도 물량 출회 여파로 끝내 하락 마감(코스피 -1.2%, 코스닥 -2.7%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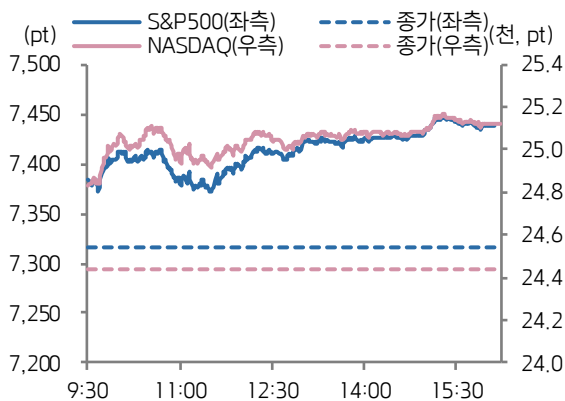
금일에는 분기 호실적에도 제품 공급 우려에 따른 애플의 시간외 6%대 주가 약세에도, 반도체에 대한 디레버리징 해소 기대감,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아마존의 시간외 주가 9%대 급등, 코스피200 야간선물 상한가(+8.0%) 등에 힘입어 반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.

한편, 전일 코스피가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컨퍼런스콜에 힘입어 5%대 강세를 보인 이후 장 막판에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는 점은 “손실 축소를 위한 반등 시 매도” 등과 같은 잠재적인 매물 부담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. 여기에 급락장에서 발생한 손실분을 레버리지 베팅을 통해 만회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. 이번주(27~30일) 누적으로 정방향 단일종목 레버리지(삼성전자, SK하이닉스 14종)를 개인이 약 1.2조원 순매수했으며, 이들의 리밸런싱 매도가 하락을 증폭시키는 숏감마성 수급을 만들어 냈을 가능성이 존재.

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레버리지발 수급 변동성은 낮아지는 쪽으로 경로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. 30일 기준 단일종목 레버리지 AUM이 약 5.7조원으로 5월 30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상태. 개인 순매수가 신규 설정으로 직결됐다기보다, 주가 급락과 기존 보유자의 매도 속에서 신규 매수자가 물량을 받아낸 손바뀜 성격이 강했음을 시사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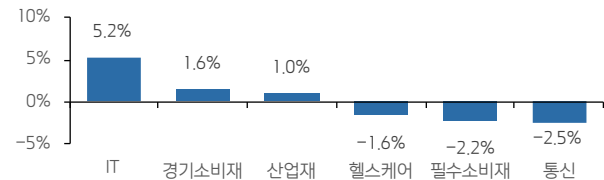
결국, 원치 않았던 이번주 폭락을 통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장 영향력이 상당 부분 축소된 것으로 해석 가능. 더욱이 1) 지난 이틀 동안 확인된 2분기 MS, 메타, 아마존 등 CAPEX 확대 기조, 2) 삼성전자 컨퍼런스콜(가격과 비트 출하량 동반 증가, 2027년까지 수급 격차 확대, 주주환원 강화 등)을 통한 주도주 중심의 코스피 3~4분기 실적 가시성이 개선됐다는 점도 긍정적. 이에 더해 3) 글로벌 레버리지 펀드들의 반도체 디레버리징 종료 가능성, 4) 주가 및 밸류에이션 상 역대급 낙폭 과대 인식 등을 고려 시 상방 재료가 우위에 있는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대응 전략의 중심으로 가져가는 것이 적절.

S&P500 & NA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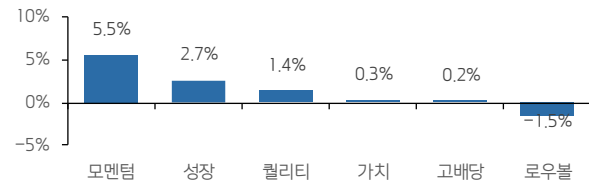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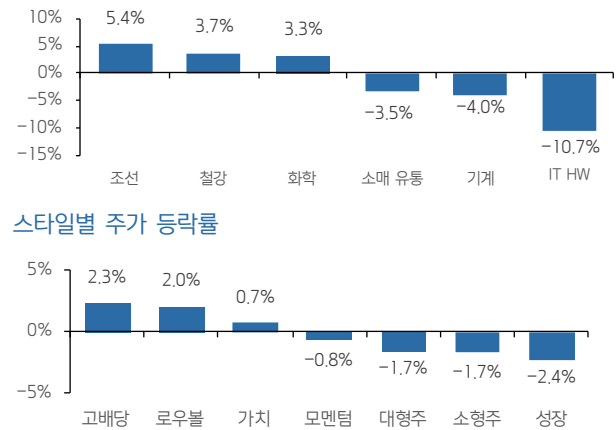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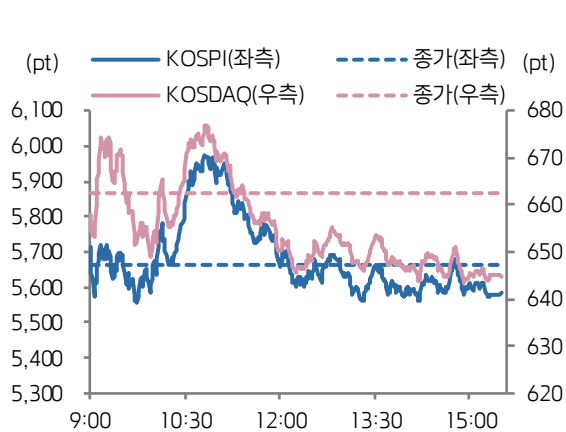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KOSPI & KOSDAQ 일중 차트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주요 종목

종목	증가	DTD(%)	YTD(%)	종목	증가	DTD(%)	YTD(%)
애플	333.43	-1.41%	+22.65%	GM	88.40	-1.12%	+8.71%
마이크로소프트	451.10	+15.51%	-6.72%	일라이릴리	1,154.97	-4.55%	+7.47%
알파벳	333.66	-0.91%	+6.6%	월마트	111.10	-2.73%	-0.28%
메타	539.03	-7.95%	-18.34%	JP모건	350.85	+1.78%	+8.89%
아마존	235.50	+3.9%	+2.03%	엑손모빌	156.97	+0.14%	+30.44%
테슬라	308.85	+3.53%	-31.32%	셰브론	192.31	+0.23%	+26.18%
엔비디아	195.04	+2.65%	+4.58%	제너럴일렉트릭	111.10	-2.7%	-0.3%
브로드컴	387.84	+4.73%	+12.06%	캐터필러	809.14	+3.38%	+41.24%
AMD	485.39	+13%	+126.65%	보잉	220.90	+3.22%	+1.74%
마이크론	874.66	+18.36%	+206.46%	넥스트에라	87.93	-0.6%	+9.5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

주요 지수

주식시장				외환시장			
지수	가격	DTD(%)	YTD(%)	지수	가격	DTD(%)	YTD(%)
코스피	5,593.56	-1.23%	+32.73%	USD/KRW	1,423.00	-1.42%	-1.15%
코스피200	872.49	-1.66%	+43.98%	달러 지수	100.01	-0.86%	+1.72%
코스닥	644.78	-2.7%	-30.33%	EUR/USD	1.15	+0.53%	-1.86%
코스닥150	1,072.42	-4.01%	-30.69%	USD/CNH	6.75	-0.18%	-3.26%
S&P500	7,437.63	+1.66%	+8.65%	USD/JPY	159.53	-2.37%	+1.8%
NASDAQ	25,122.18	+2.78%	+8.09%	채권시장			
다우	52,208.06	+1.19%	+8.62%	가격	DTD(bp)	YTD(bp)	
VIX	17.09	-17.28%	+14.31%	국고채 3년	3.827	+2.4bp	+87.6bp
러셀2000	2,946.10	+1.37%	+18.7%	국고채 10년	4.311	+5.6bp	+92.6bp
필라. 반도체	11,302.99	+8.19%	+59.58%	미국 국채 2년	4.246	-2.7bp	+77.3bp
다우 운송	21,089.23	-1.74%	+21.5%	미국 국채 10년	4.673	-0.4bp	+50.6bp
상해종합	3,804.69	-0.62%	-4.14%	미국 국채 30년	5.214	+1.3bp	+37bp
				독일 국채 10년	3.155	-0.5bp	+30bp

항생 H	8,644.71	+0.25%	-3.02%	원자재 시장	가격	DTD(%)	YTD(%)
인도 SENSEX	77,928.15	+0.35%	-8.56%	WTI	83.59	-1.03%	+46.62%
유럽, ETFs	가격	DTD(%)	YTD(%)	브렌트유	89.03	-1.88%	+46.31%
Eurostoxx50	6,344.40	+1.53%	+9.55%	금	4,160.60	+1.55%	-7.49%
MSCI 전세계 지수	1,107.04	+1.48%	+9.11%	은	59.02	+1.99%	-16.41%
MSCI DM 지수	4,821.78	+1.64%	+8.83%	구리	647.45	+3.2%	+13.95%
MSCI EM 지수	1,563.01	+0.22%	+11.3%	BDI	2,632.00	-1.2%	+40.22%
MSCI 한국 ETF	161.21	+11.79%	+65.82%	옥수수	468.50	-0.69%	+1.74%
디지털화폐	가격	DTD(%)	YTD(%)	밀	663.50	+0.42%	+21.58%
비트코인	64,716.90	+2.01%	-26.16%	대두	1,188.75	-0.34%	+11.67%
이더리움	1,920.12	+2.01%	-35.52%	커피	307.70	-0.28%	-2.18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7월 30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에 개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